

14장 제국시대와 민족국가: 삶권력 II

(1교시)

▲ 제국과 제국주의

민족국가 → 제국 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가 들어섰다.

고전적인 형태의 제국이라는 용어가 근래에는 왜 초국가적인 의미로 사용될까?

제국주의와 제국의 구분이 필요함.

→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만들고 먹어치우면서 발전하는 기제이다. 민족국가가 그대로 확장하는 형태임. 민족국가 주권이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제국주의. 민족국가의 한 양상이다.

로마 제국은 이와 달랐다. 로마 제국은 일종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외부를 지배해 나갔음.

외부를 로마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만드는 방식을 취함. 식민지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함. 해당 지역의 지배체제를 유지시켜 줌. 제국은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리는 형태를 취함. 마치 군주와 귀족의 관계가 성립된 것임. 경쟁적 협력관계가 창출되게 됨.

▲ 제국은 어떤 모양을 가지는가?

→ 제국은 피라미드 형태를 가진다.

가장 위에는 미국, 중간에는 국제기구(IMF, IBRD, UN), 민족국가와 지역공동체(EU, ASEAN)가 있다. 이 아래로 가면 국가 내의 당과 NGO가 하위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이제는 협정과 연합과 회담을 통해서 서로 간의 권력을 배분. 이 기능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최하층의 집단들은 일차적으로 다중의 힘 재현. 그 유형은 선거나 참여의 방식을 가짐.

상층부로 갈수록 하나의 주권 아래로 모든 에너지를 통치함.

▲ 제국주권의 특징

총체성

→ 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다양한 요소들을 끌어안은 총체적 질서로 제국은 성립된다. 이 총체성의 내적 구조는 네트워크 권력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임. 즉 제 요소들의 망적 결합에 의한 질서라 할 수 있음.

예> 총체성 구조 안의 위계제 형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로 결합. 군주와 귀족은 견제와 균형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간다.

즉 역사 속에 나타난 여러 지배 형태를 유기적으로 종합하고 있다.

(2교시)

▲ 제국의 특징과 제국의 도래

탈영토화적 질서

영토화란 본래 제국주의의 질서. 영토는 대지에 기초한 주권체제들이 주권을 재생산하는 것임. 국가는 끊임없이 영토화를 해 나감. 그런데 **제국**은 신자유주의 질서 안에서 탄생한 주권체제라는 점에서 탈영토적 기능이 더욱 부상함.

제국은 외부와의 병합을 멈추고, 내부에서 외부로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재생산함. 즉 없는 외부로 창출해 냄.

자본은 완벽한 이동성을 갖추고 있음. 물론 직접적인 정복을 통한 외부세계의 창출도 일정 부분 남아있음.

예> IMF 관리 체제에서 이들의 최우선적 요구는 다름 아닌 **해외자본의 무차별 도입과 유치**였다. 자본에 대해서는 무한정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지만, 노동에 대해서는 반대로 철저히 폐쇄한 조건을 제시함.

탈영토적 질서의 또 다른 특징

과거에는 제1세계, 2세계, 3세계 하는 식으로 영토적 질서가 삼분화 됨. 세계적 분할을 뚜렷한 경계선을 가짐. 한 지역 내에도 뚜렷한 계층적 분할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울만 보더라도 강남과 비강남의 구별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과거의 삼분적 분할 도식은 이제 서서히 해체됨.

▲ ‘미제국주의’에 대하여

제국기제라는 용어는 지구화하는 오늘의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전쟁과 가난과 생태위기를 생산하는 권력기제라는 인식에 토대를 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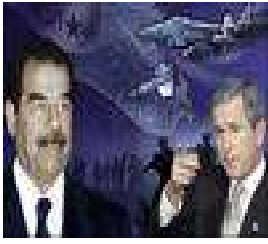
이 용어는 (이라크 전쟁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미제국주의**’라는 민족국가 중심적 용어에 대한 비판을 함축. 이 중심에 **미국의 일방주의**가 있다.

‘**미제국주의**’라는 개념은 미국을 로마에 비교하면서 미국의 힘을 과장하는 경향을 보여줌.

분명 미국이 이라크 전쟁의 주요한 행동주체이지만 미국이 전쟁에 나서게 되는 동기는 결코 일국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초국적 기구들, 민족국가들, 지역연합들, NGO들의 **네트워크 권력인 제국 내부의 갈등과 위기**이다.

이 네트워크 권력의 군주국인 미국은 반달러-친유로 정책을 취한 후세인을 제거함으로써 유럽연합과 유로화를 견제하고 달러화를 방어함으로써 제국기제를 자국 주도로 재생산하려 했다.



부시는 이라크 침공을 통해 제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 제국주의 시절 민족국가의 두 가지 기능 : 창출과 방어, 보호와 억압

외부의 침략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침략 형태가 발생함. 부시의 전쟁도 단순 침공이 아닌 처벌과 치안유지의 역할로 포장됨.

→ 새로운 논리로서 제국적 질서를 유지. 민족국가는 이제 새로운 존재위기를 가짐

제1세계

→ 민족국가는 대외적 팽창의 전위부대로서 기능.

국가는 금융자본을 보호하고 이를 확장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는 형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형태로 유지.

제3세계

→ 근대적 주권을 수립하거나 상실된 주권을 되찾고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

즉 민족국가는 창출과 방어를 수행하는 노력을 하면서, 보호와 억압이 공존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 초국적 이해관계속의 민족국가

초국적 금융자본이 자본의 중요한 형태이므로 일방적 제국주의가 나타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음. 과거의 일방적 지배관계는 성립되기 어려움.

민족국가 주권은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이는 제국이란 초국적 이해관계의 영향 때문이다. 해방과 억압 그 어느 것도 민족국가 내부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 민족국가는 제국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하위마디에 불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